

목양 칼럼

대청소 하는 날

어제 토요일은 우리 교회에서 연례행사로 하는 대청소 날이었습니다. 새벽기도회를 마친 후 여러 기관들이 부지런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 모습은 큰 일을 앞 둔 잔칫집 같아 보였습니다. 비가 오는 중에도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일하면서도 행복한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집이기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몇 가지 감사 조건을 생각해보았습니다.

1. 각 기관별로 청소를 하는 데 자기 부서가 아닌 곳도 기쁨으로 참여해서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한 식구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2. 직장에서는 높은 지위에 계신 분들도 하나님의 집에서는 일꾼처럼 일을 하셨습니다. 사도바울이 자신은 자기 주장이없는 종이라고 표현한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3. 교회에 등록하신 지 얼마 안 되는 새가족도 함께 열심히 일하시는 것을 보며 한 지체라는 이미지를 삶으로 보여주신 것 같아 감사했습니다.
4. 청소할 때 모두 기쁘게 참여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분위기 메이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두 지치지 않게 유머도 나누고 격려도 하는 등 재미있게 청소를 했습니다.
5. 점심식사 시간이 되었을 때 피자를 오더해서 섬겨주시는 분, 떡볶이로 섬겨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굶지 않고, 힘 떨어지지 않고 청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6. 직장의 일을 마치고 청소가 어느정도 마무리가 된 다음에 오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끝마무리는 그 분들의 손길을 통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필요한 때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기만 했습니다.
7. 적어도 일 년에 한 번 이상은 대청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에 보이지 않던 문제가 보였고, 정리되어야 할 곳이 보였습니다.
8. 결국 우리 영혼의 대청소도 이와같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기모임 안내

집회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9:30
	3부 예배	오전 11:00
	영어 예배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본당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요일-토요일)	본당
목장모임	오후 8:30 (매월 셋째 금요일)	각 목장별로
제자훈련	각 동반자별로	각 동반자별로
주일학교	영아유치부 (5세 이하)	오전 11:00
	유년부 (1-6학년)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모임 오후 07:30 (금요일)
Silver Club	목요일 오전 10:00- 오후 2:00	친교실
Mommy & Me	금요일 오전 10:00-11:30	유치부 예배실
뉴욕예일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10:00-12:00	교육관



VISION 2023 DISCIPLESHIP MARCH

뉴욕예일장로교회

표어: 예수님 제일 (마 16:16)



- 영감있는 예배
- 십자가 사랑의 교제
- 땅끝까지 복음전파
- 천국일꾼 훈련양성
- 이민가정의 치료
- 능력있는 기도 생활

담임목사 김중훈
Senior Pastor: Rev.
Jong Hoon Kim, D.Min

17 New South Rd.,
Hicksville, NY 11801

Tel. (516)938-0383
Fax. (516)938-3824
<https://YaleChurch.org>

주일예배		제 32권 18호 주후 2023년 4월 30일	
예배 시간	1부 오전 8:00	2부 오전 9:30	3부 오전 11:00
인도자	홍정자목사	우영주목사	백에스라목사
예배의부름	인도자 (요 4:24)		
예배 기원	인도자		
신앙고백	다같이 (사도신경)		
찬송	354장		
기도	강호정집사	정수영장로	김현수장로
성경봉독	마(Mt.) 5:6-8		
찬양	중고등부	글로리아	할렐루야
말씀	복이 있는 사람 (2) 김중훈목사		
찬송	455장		
봉헌	630장		
예일 소식	인도자		
찬송*	635장		
합심기도*	다같이 (감사/결단/축복)		
파송의말씀	인도자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축도*	김중훈목사		

*표는 일어서 주십시오

수요일예배 (임직자 헌신예배)

- 5월 3일 오후 8:30
- 기도: 손정민집사
 - 말씀: 김중훈목사
 - 다음주 기도: 김영모권사

새벽기도회 오전 5:30

- 말씀: 김중훈목사


다음 주일 기도


- 1부: 계현민집사
- 2부: 김용호장로
- 3부: 김두성장로

4월 안내위원

- 1부: 예배부
- 2부: 최영희 권사
- 3부: 홍성민 집사, 홍영 집사

예배 및 헌금 안내

- 모든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립니다
 - **수요예배:** 임직자 헌신예배
 - **담임목사 동정:** 4/30(오늘) 오후 5시, 뉴욕 선교사의 집 재개원예배 축하
 - 교회 내 마스크 착용 및 성도간의 악수는 자율에 맡깁니다.
 - * 예배 전 헌금함에 헌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 교회 못 오시는 분은 우편 혹은 Venmo 이용
- 

venmo
- Address: 17 New South Rd. Hicksville, NY11801.
Pay to order: Yale Church or Yale Presbyterian Church.
Venmo: venmo@YaleKM, CCM Venmo는 @YaleCCM입니다.
- **4월 선교회 월례회:** 4/30(오늘), 3부예배 후 각 선교회 별로
 - **4월 성경 통독 및 다독자 보고:** 각 목장 별로, 5/3(수)까지
 - **제52기 새가족 종강식 및 종강파티:** 5/7(주일)
 - 종강식: 3부예배 중 본당 종강파티: 오후 5시, 친교실
 - **유아세례 신청:** 어린이주일 (5/7)에 유아세례를 원하는 가정은 부목사실로 신청
 - **창립 30주년 기념 메시아 찬양제 연습:** 점심 식사 후 연합으로
 -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회:**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사랑방)
 - * 1부: 김송기 전도사 (7:50-8:20) 2부: 김민 목사 (9:10-9:40) 3부: 홍정자 목사(10:15-10:45)
 - **감사의 떡 대접:** 김중훈목사&조유경사모 가정 (장례 감사)
 - **강단 꽃 장식 및 사랑의 식탁**
 - 강단 꽃: 김창언집사&윤정희전도사 (결혼기념)
 - 사랑의 식탁: 차상연집사&김정현권사 (유나 생일), 한송만집사&한미선집사 (결혼기념)
 - **식사기도 담당자 및 식당봉사**
 - 식사기도: 이번주: 김광균장로 다음주: 이주석 장로
 - 식당봉사: 이번주: 8마을 다음주: 1마을
 - **동시통역:** Live English interpretation for sermon is available (11am Service).
 - Zoom QR Code for Sermon Translation
- 

복이 있는 사람(1) 마 5:1-5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많이 읽고 설교도 많이 듣는다. 그러나 때론 읽고 들은 말씀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 잘 정리된 말씀은 삶의 요긴한 순간에 지혜와 통찰력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예수님께 대한 말씀이다(요 5:39).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사복음서이다. 사복음서 중에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정리한 곳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이다. 산상수훈의 요점이 바로 서론 부분인 팔복이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팔 복을 외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한다. 팔복을 세 주에 걸쳐서 설교를 하려고 한다.

1. 성경적 복의 개념은 무엇인가?
 - 1) 세속적 복의 개념: 소유의 개념이다. 좋은 배우자, 직장, 자녀, 성공, 건강, 물질 등을 가진 사람을 복된 사람이라고 한다.
 - 2) 성경적 복의 개념: 천국(하나님 나라)을 소유한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다. 아무리 이 땅의 소유를 많이 가져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곳은 지옥이 된다.
2.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의 복을 받는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벼랑 끝에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그분의 다스림이 커진다." 나의 계획이 무너지는 것이 복이다.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가 바로 이것을 가르친다.
3. 애통하는 자의 복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다. 역시 유진 피터슨은 "위로"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종류의 울음이 있다. 원망의 울음은 정신적으로 해롭다. 우울증과 분노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 울음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한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한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세 번 우셨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요 11:35), 예루살렘 보시면서(눅 19:41), 그리고 겹세마네 동산에서 우셨다(히 5:7). 예수님의 눈물은 사랑의 눈물이었다(롬 12:15). 가족구원과 민족구원의 눈물이었다. 사명을 위한 눈물이었다.
4.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온유는 부드러움이지만 힘이 없는 것이 아니다. 힘을 쓸 때는 쓰고, 안 쓸 때는 안 쓰는 절제된 힘이다. 성도들과의 싸움에는 힘을 안 쓴다. 그러나 마귀와의 싸움에는 힘을 쓴다. 반대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힘을 쓸 때와 안 쓸 때를 구분하는 지혜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명예를 매고 배우는 것이다(마 11:28, 29). 명예는 십자가이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은 겸손히 십자가를 지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려는 사람들에게는 채찍을 드셨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이다(사 56:7). 불의한 것에 맞서야 부정이 정화된다. 그러나 조심해야 한다. 분노하다 보면 우리의 죄성이 솟구치기 때문이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신앙 공동체의 화목을 위해(엡 4:1-3), 전도할 때(벧전 3:15) 특히 온유와 겸손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

땅은 영향력이다. 존경이다. 삶의 승리이다. 땅을 목표로 삼고 살면 끝에는 오히려 세상을 잃게 된다. 온유와 겸손으로 십자가를 목표로 삼고 살면 땅을 얻고 결국 승리하게 된다.

교우동정

- 한국방문 최광숙 집사

행사예고

- 05/07(주일) 어린이주일, 유아세례, 정기당회
- 05/14(주일) 어버이주일
- 05/21(주일) 창립 30주년 기념예배 및 임직식
- 06/03(토) 종교등부 Restaurant Night 및 30주년 드라마 공연

방송설교

- KRB FM 87.7 (라디오): 매주 화요일 오전 6:30-7:00
- Cablevision Ch. 1156 (텔레비전): 주일 오후 9:00-9:30 (재방송, 월요일 오전 6:30-7:00) CTS
- Direct TV Ch. 2092 (텔레비전): 주일 오후 8:30-9:00 (재방송, 월요일 오전 9:30-10:00) CTS